

성보 해마다 30점 이상 도난



94%가 비지정문화재 최근 한달새 6점 없어져

국회사무처 국감자료

“해마다 30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도난 당하고 있으며, 이중 94%는 비지정 불교문화재다.”

국회사무처가 배포한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10월 27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어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에 대처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자체적인 대응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 1천 587점을 비롯해 시·도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각 사찰에서 불교문화재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이를 관리·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지않고 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 지정 불교문화재와는 달리 비지정 불교문화재는 거의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지정 문화재 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문화재보호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그 틈을 노려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다. 입법 예고 후 한달 동안 도난 당한 비지정 불교문화재는 유가사 산내 암자 도성암 후불탱화와 복장유물, 해은사 가락국 수로왕과 왕후 영정, 대전사 후불탱화 등 불화 6점에 수량을 알 수 없는 복장유물 등이다. 이는 올 3월에 1건, 5월에 2건, 6월에 1건 등 7개월 동안 4건에 불과하던 도난사건이 최근 한달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스스로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측·건물측량·타본·사진·연대 등을 기록하고, 그 가치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문화재 보호책은 정부 당국의 행정적 지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행정 당국은 불교문화재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opia.com)

해외유출문화재

7만4548점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7만4548점에 달하는 반면 환수된 문화재는 443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해외유출 문화재는 일본·미국 등 20개국에 7만4548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본이 3만4157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만5414점, 영국 6610점, 독일 5289점, 러시아 3554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중국·덴마크·캐나다 등에도 1000점 이상씩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그동안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는 △일본 3519점 △미국 725점 △뉴질랜드 193점 △프랑스 1점 등 4개국에서 모두 4438점에 불과했으며 이중 2779점은 구입·기증 형태로 환수됐고 정기간 협상에 의한 것은 1659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불법유출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협상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장국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 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⑤ 구하의 통도사·운문사 편액



◇양산 통도사(적멸보궁).



◇청도 운문사(오백전).

구하 천보(九河天輔·1872~1965)는 경상북도 울주 출생으로 13세가 되던 1884년 양산 내원사 주관(主官)에게 출가하고, 경멸(慶蔑)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예천 용문사를 비롯한 여러 절을 돌며 교와 선을 참구하였고, 다시 통도사로 들어가 명진 학교를 설립, 교장을 지냈으며, 통도사 주지, 중앙학림 교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하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도제양성에 힘썼으며, 또한 수차례 걸쳐 상해 인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승려 연합회 대표자 12인 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참여하였던 근대의 고승이었다.

적멸보궁

굵은 서체의 조화 ‘안정’

오백전

86세 쓴 거침없는 선필

자재(自在)한 운필(運筆)을 특장으로 하는 구하의 글씨는 세수 94세, 법랍 81세로 입멸에 들기까지 오랜 기간을 주석하며 수행에 전념했던 통도사 (적멸보궁), (명부전), (전향각), (삼성각), (전향실) 편액을 비롯하여, 하동 쌍계사 (화엄전), (삼성각), (영모각), 양산 내원사 (선해일련), (삼우당), 남해 용문사 (대웅전), (명부전), (적묵당), (용화전), 의성 고운사 (삼성각), 경주 불국사 (극락전), 청도 운문사 (오백전), (전향각), 장성 백양사 (칠성전) 편액 등 주로 경상도 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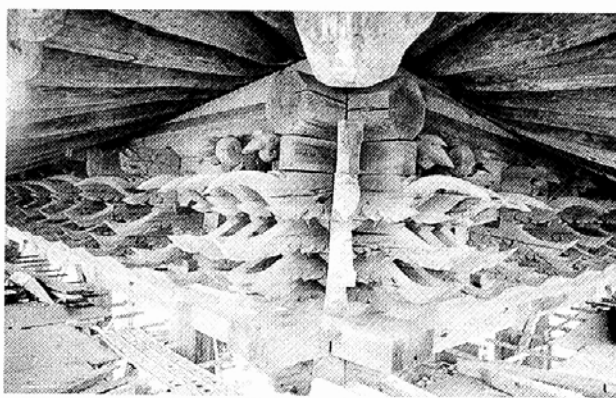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대웅전 우측에 걸린 (적멸보궁) 편액에는 ‘해동사문 천보서(海東沙門 天輔書)’라는 관자와 두인 그리고 ‘취산(鷗山)’이라는 도사 2과가 찍혀 있다. 이 (오백전) 편액은 오백나한전을 즐겨 쓴 것으로, 구하가 86세 되던 1957년에 쓴 것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도사 2과가 찍혀 있다. 절의 본전인 이 전각에는 앞쪽에는 (대웅전), 왼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편액이 함께 걸려있는데 이 편액은 사내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까닭에 붙여진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구하가 노경(老境)에 이르러 쓴 것으로 후경(厚勁)한 서미(書味)를 지닌 선필(禪筆)이다.

청도 운문사 (오백전) 편액에는 ‘해동사문 천보 당년팔육세시서(海東沙門 天輔 當年八六歲時書)’라는 관자와 ‘김구하인, 취산(金九河印, 鷗山)’이라는 도사 2과가 찍혀 있다. 이 (오백전) 편액은 오백나한전을 즐겨 쓴 것으로, 구하가 86세 되던 1957년에 쓴 것이다.

두 차례나 사경(寫經)하고, 5백여 명의 장정을 뽑아 불상을 주조해 봉안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 해방 당시에 이미 민가가 들어찬 주택이었고 용머리문과 불상이 출토됐을 뿐 복원은 불가능했다.

진 박사는 “최근에 남북 관계가 바뀌었으니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옛 기억을 더듬어 이 문화재를 과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화재를 물었던 4명중 진 박사는 유일하게 생존자이다.



◇능가사 대웅전 공포의 부재.

고흥 능가사 대웅전 보물지정

전남 고흥 능가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 능가사 대웅전은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와 건물에 사용된 기와 명문 등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57평 규모다. 또한 ‘대웅전 처마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는 공포의 부재(안초공·按草工)에 연꽃봉오리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전남 남해안 지역 사찰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학술적 가치가 높다.

“북한 개성박물관 근처에 불상 문혀있다”

진홍섭 당시 박물관장 증언

50년간 땅속에 묻혀있는 불상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한국전쟁 때 민천사(冥天寺·고려) 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 10여 점을 개성박물관 근처에 묻어놓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권(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성 박물관장을 지낸 원로 미술학자 진홍섭(82·전 문화재위원장) 박사가 중공군 참전으로 급하게 피난하게 되자 박물관 근처 마을 주민 2명,

수위 1명과 함께 문화재들을 묻고 훗날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민천사는 개성시내에 있던 고려 왕실의 원찰이다. 고려 충렬왕 3년에 수녕궁을 절로 바꿀 것을 명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되지 않았고 32년 뒤인 1309년 충선왕 1년에 민천사로 바뀌었다. 민천사는 승려와 속인 300여명을 모아 금지대장경을

“계놈시대 종교존속”

박이문 교수, ‘계놈과...’ 세미나서 주장

“종교인은 계놈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종교가 어떻게 적응하고 올바른 규범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박이문(미국 시몬스대) 명예교수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21세기 계놈시대와 종교 문화”란 논문을 통해, 종교인은 계놈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비불기만 한 인간의 인체조차 완전한 물질적 조작의 대상이 지나 않는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계놈 프로젝트는 ‘과학적 기적’으로 종교인에게 전통적인 믿음과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은 자신의 가치와 행위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교수는 “계놈시대에도 종교는 존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공학을 비롯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의식하는 인간으로서 종교적 감정과 행위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계놈은 인간의 어떤 측면의 서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자체를 완전히 서술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우주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즉, 계놈 프로젝트를 유물론적 세계관의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는 ‘계놈과 인간복제의 문제’에서 “종교인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계놈 프로젝트와 판도라의 상자’에서 “종교·심리·사회학자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1월 4일 오후 2시 제17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문화비평가 이도훈(한양대 강사) 박사는 ‘회쟁기화화,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송진현(서울교육대 강사)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02)744-1541

한국불교학 26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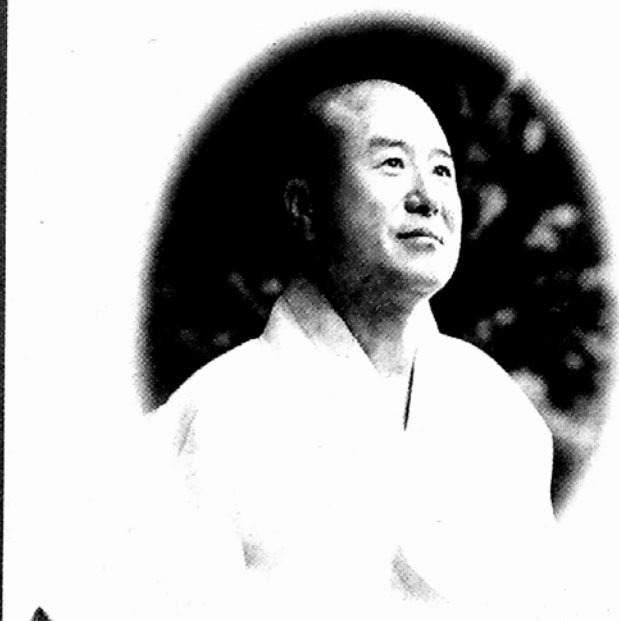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는 춘계학술 발표논문모음 **〈한국불교학〉** 제26호를 발간했다. ‘불교교학’ ‘선학’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3장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지에는 ‘니시타니 게이지의 불교적 허무주의’ (이찬수), ‘화엄경소’와 주역의 감응(感應) 사상 비교 (차차식) 등 총 2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02)2260-3121

이기영 박사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은 5일 오전 11시 연구원 법당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불연전집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이번 4주기에는 불연전집 제25권인 **〈유마경 강요〉**를 발간한다. (02)3411-6167~8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아름다운 설산스님 에세이

멋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젓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 Home Page address: http://www.seolsan.com / * 저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 303-0024)

◆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전화 536-0477
팩시밀리 536-0478
동선 정어리 비빔